



‘사랑’은 ‘사람’입니다.

우리 학교의 인사말은 ‘사랑합니다,’ 입니다, 그저 그렇게 시키니깐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무 의미 없는 짓이요, 그건 단순히 앵무새가 사람 말 흉내 내는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며 명랑하게 인사하는 아이들에게 장난삼아 물어보곤 합니다, “진짜로 날 사랑하는 거니?” 라고 하면, 밝은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예, 정말 사랑해요,” 그런 대답을 들으면 참 행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랑합니다,” 라는 인사말을 하면서 그 의미를 바로 새기고 실천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 의미를 같이 새겨봅니다.

1. 인사(人事)가 만사(萬事)!

- * 인사(人事) : ‘사람 인, 일 사’ - ‘사람의 일’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관리나 직원의 임용, 해임, 평가 따위와 관계되는 행정적인 일.
- * 인사(人事) : ‘사람 인, 섬길 사’ - ‘사람을 섬기는 것’.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임]
-마주 대하거나 헤어질 때에 예를 포함. 또는 그런 말이나 행동.
-처음 만나는 사람끼리 서로 이름을 통하여 자기를 소개함. 또는 그런 말이나 행동.
-입은 은혜를 갚거나 치하할 일 따위에 대하여 예의를 차림. 또는 그런 말이나 행동.
- * ‘인사가 만사’라는 말 : 사람을 잘 골라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면 나머지 일은 잘 풀린다는 말로 그만치 인사배치가 모든 일의 시작이고 끝이라는 것입니다.
- * 인사배치 만 그런 건 아니죠. 인사성 밝은 것도 사람 일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죽을 때까지, 하루 일의 시작과 끝, 모든 일의 시종에서도 ‘사람 됨은 인사로 시작하고 인사로 끝나는 것’입니다.

2.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사람입니다’ 라는 선언!


- *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인사말은 ‘사랑합니다’ 입니다. 그 말에 의미를 더해야만 가치있고 교육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 * “사랑’이라는 말과 가장 많이 닮은 글자, 가장 소리가 비슷한 우리말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렵지 않게 다들 대답합니다. ‘사람’이라구요.
- * 그렇습니다. ‘사랑, 사람’ 참 많이 비슷합니다. 얼핏 들으면 같은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사랑은 사람입니다. 결코 견강부회(牽強附會)의 말은 아닙니다.
- *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나는 사람입니다”라며 선언하는 것이며, “당신도 사람입니다.”라며 존중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람답게 하는 걸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 * 공자는 “불인(不忍)이면 비인(非人) : 참지 아니하면 사람이 아니다.”라고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고쳐 씁니다. “불인(不仁)이면 비인(非人)이라. : 곧,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라고요. 그래서 공자는 “인자인야(仁者人也) : 어진 사랑은 곧 사람이니라.”하셨습니다. 사랑은 사람이며, 사람은 사랑입니다.





3. 사랑의 종류

- * 세상에는 말도 많습니다. 그 많은 말로 서로 행복하기도 하지만 서로 상처주고 받으며 후회하기도 합니다.
- *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고도 하며,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말을까 하노라.’고도 합니다.
- * 그 많고 많은 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은 무엇일까요?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한 ‘**사랑**’일 것입니다.
- * 사랑도 여러 종류입니다. 타자본위적이며 헌신적인 **아가페(Agape)**, 자타본위적 낭만적인 **에로스(Eros)**, 이기적이며 육체적인 **에피투미아(Epitemia)**가 있습니다.
- * 그 외, 친구간의 우정을 뜻하는 필로스(Philos)도 있습니다. 철학(哲學)의 필로소피(philosophy)는 ‘지혜(Sophia)를 사랑(Philos)를 사랑하는 것’이지요.
- * **믿거나 말거나! 가족(Family)**의 어원 :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의 각 단어의 첫 글자를 합성한 것이라네요.

아가페	에로스	에피투미아
		
피에타(Pieta) : 미켈란젤로	프시케와 에로스(일부) : 프랑수아 제라르	판에 의해 놀란 다이아나와 림프들(일부) : 루벤스
예수와 성모 : 인류 구원을 위해 자기 희생적 사랑을 보여냈다. 주님은 사랑이다.	Eros는 사랑, Psyche는 영혼. 프시케 머리 위의 나비는 영혼을 상징한다.	욕욕을 채우려는 반인반수의 Pan(판)이 나타나면 Panic(패닉)에 빠진다.

4. 사랑의 어원

[우리말, ‘사랑’의 어원] : 생각하다. 사르다

- * **사랑(思量)** : 양주동박사 - ‘상대방을 생각하고 헤아리다..’ 순 우리말이 아니란 거죠.
- * **나중, 사(思)** : ‘생각하다’와 ‘사랑하다’로 분화 - “난 온종일 당신을 생각했어요”
- * **순 한글 ‘사랑’** : 앞에서 ‘사랑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결코 견강부회가 아니라고요.
- * ‘사르다’[燒, 사를 소] : 불사르다 < 살다[生] : 불처럼 타오르는 마음, 삶 < 사랑
- * **사르다[燒] < 살다[삶, 生] < 살[肉] < 살음 < 사람[人] < 사랑[愛]**
- * 결국 삶과 사람과 사랑은 한 뿌리에서 나왔답니다.
- * **삶 = 사람 = 사랑** :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 그외 : 닳다 > '다습' | 괴다 > '괘' - 일본어 고이(がい , 사랑)의 어원

[영어, 'Love'의 어원]

- * 인도 산스크리트 어원 "LOVBH"- '차지하다', '채우다'
- * 라틴어 어원 "Lubere"- '기쁘게 하다'

[한자, '愛'의 어원]

- * 사랑, 애(愛)의 파자 : 목멜 기(无)+마음 심(心)+천천히 걸을 쇠(父)
- * 마음이 메이고 무거운 짐 때문에 빨리 갈 수가 없는 상태
- * 사람에게 은혜를 가한다는 뜻
- * 사람에게 복을 주는 마음을 품거나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행함
- * [사;思], [모;慕] - '사모하는 나의 마음.... 애태우는 나의 심정...'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사랑 : 어진 사랑, 인(仁)]

- * 인(仁)의 구조 : 사람(人)과 둘(二)의 결합. 곧 두 사람을 의미.
- * 《중용(中庸)》 "인자인야"(仁者人也) : 인(仁)은 사람(人)이다.
- * 인(仁) = 다이애드(dyad)에 해당 :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 나와 너 양자
- * [오륜(五倫)]

인간관계	부자(父子)	군신(君臣)	부부(夫婦)	장유(長幼)	붕우(朋友)
사랑:인(仁)	친(親)	의(義)	별(別)	서(序)	신(信)

* [사람 사이, 사랑 : 인(仁)의 구체적 실현] : 소학, 명륜편 - 안영의 말

인간관계	인(人 : 仁)의 도리	뜻	비고
군신	君令臣共(군령신공)	임금은 명령하고 신하는 복종하며	君聖臣忠(군성신충) 君義臣行(군의신행)
부자	父慈子孝(부자자효)	아버이는 자애롭고 자식은 효도하며	
형제	兄愛弟敬(형애제경)	형은 우애하고 아우는 공경하며	兄友弟恭(형우제공)
부처	夫和妻柔(부화처유)	남편은 화순하고 아내는 유순하며	
고부	姑慈婦聽(고자부청)	시아미는 자애하고 며느리는 순청하라	

* 선생님이 제자를 사랑하는 것 - 공자의 인(仁:어진 사랑)에서 찾다.

- 孝悌也者 其爲仁之本與(효제야자 기위인지본여) : 부모님을 섬기는 효와 형제간의 우애는 곧 인(仁)의 근본이 되느니라. - 먼저 효도와 우애, 사랑의 근본
- 樊遲 問仁 子曰 愛人 (번지 문인 자왈 애인) : 번지가 인을 물으니, 공자 말씀하시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오. - 사랑하는 것
- 唯仁者 能好人 能惡人 (유인자, 능호인 능오인): '오직 어진 자만이 능히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 - 맹목적 무조건적 사랑이 아님
- 克己復禮 爲仁 (극기복례 위인) : '이기심을 버리고 예를 따르는 것이 곧 인(仁)이니라.' - 편협한 혈연, 지연의 이기주의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여야 함.

▪ 殺身成仁(살신성인) : 자신을 죽임으로써 인(仁)을 이루었다. - 자기 희생적 사랑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짐이나 소란한 꿩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코린토 전서 13장 1절

“사랑? : ..사랑은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려 할 때 샘물처럼 고여 든다.
그 샘물이 마음 안에 푸르른 숲을 만든다. 푸르른 낙원을 만든다.
손 천지를 둘러보아도 사랑의 반대말이 없으며
손 우주를 살펴보아도 아름다움의 반대말이 없는 낙원을 만든다.
사랑은 바로 행복 그 자체다.”
-이외수의 감성사전에서



“언제나 사랑을 ¹충²충³하게 하는건
바로 사랑” 사랑♥사랑

